

영하 14.5도 북극 한파에 광주·전남 '공공'

(영광군)

북극 찬 공기 급습...광주 10년사이 3번째 영하 11도대 동파·차량 배터리 방전...시민 불편 속 27일까지 강추위

광주·전남이 '북극 한파'로 공공 얼어붙었다. 24일 광주 최저기온은 기록적인 영하 11.2도를 찍었다. 이날을 포함해 최근 10년 사이 영하 11도 대를 기록한 날은 3차례였다.

이날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는 빙판길이 됐다. 이번 강추위는 오는 27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1년 1월 16일(오전 6시)과 2016년 1월 24일(오전 8시) 영하 11.7도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기온인 영하 11.2도(오전 9시 현재)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광군이 영하 14.5도로 가장 추웠으며, 신안(압해도) 영하 11.6도 ▲함평 영하 11.5도 ▲무안 영하 11.3도 ▲광주 영하 11.2도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한파가 몰아친 원인으로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를 지목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신지성 담당은 "이번 추위는 러시아 바이칼호 상층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곳을 연결한 선(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할린 주변의 공기가 정체돼 동서의 흐름을 막고 남북의 흐름을 강화시켜 상대적으로 찬 북

극의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인 러시아 바이칼호 상층 기압능이 발달한 것은 북극 주변의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트기류는 북극을 돌면서 북극의 한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아 북극 상층의 온도가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결국 한기가 러시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북태평양 베링해 주변에서 블로킹(차단) 현상이 일어나 한반도까지 내려온 북극의 찬 공기가 오도 가도 못한 신세로 갇히면서 혹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이 때문에 오는 27일까지 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한파로 인

한 시민 불편도 이어졌다.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 23일 오후 2시 45분께 광주시 동구 장동 7층 규모 상가건물에서 급수관이 동파돼 지하 기계실 200㎡(70평)가 침수됐다. 그 여파로 24일 오후까지 단수조치되는 등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례도 잇따라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긴급출동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눈 등 기상 악화로 곡성군 구성재 5km, 진도군 두목재 3.5km 도로가 통제 중이고, 5개 항로 8척의 여객선 운항 중단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아 춥겠지만 28일 오후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풀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검찰이 꼼꼼한 수사로 살인 혐의 밝혀내

지인 폭행·차로 치어 살해

순천지청, 60대 구속 기소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처리한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승용차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치밀한 수사 없이 운전자를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유증상태에서 고의로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유증운전) 등으로 A(64)씨를 구속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 치사(유증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40분께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

서 말다툼 끝에 지인 B(62)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B씨의 몸을 차로 타고 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랑은 B씨 소유 승용차였다.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가는 문제를 놓고 주먹다짐 끝에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증운전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를 운전한 점에 주목하고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화면분석,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녹음파일 등 분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로 B씨를 한 차례 밟고 지나간 뒤 후진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을 수상이 여겼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낸 뒤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사건 청탁 대가 돈 받은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승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고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 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A 변호사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자문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의회 비례대표 시켜줄게" 1억원 수수 정황 포착 수사

광주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당원들이 구의회 비례대표 추천 등과 관련해 거액의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모 정당 지역위원회 소속 A씨는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에 관심이 있는 B씨로부터 당비명목 등으로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지역당 간부의 차량 등을 운전하면서 주변에 세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는 구의회 비례대표 등을 거론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지인 등으로부터 금품 상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

"왜 무시하냐"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 때린 만취 승객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코까지 잡고 비틀었다가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유모(57)씨는 지난 23일 밤 11시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안모(68)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나한테 술냄새가 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안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

○...다행히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추위 피해 온기텐트로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친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온기텐트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하고 있다. 추위는 오는 27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오늘 대법 선고 주목

광주·전남 79명 등 1292명 사망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의 선고심 결론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터(옥시·현 RB

코리아) 신현우·존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광주·전남에서 79명이 숨지는 등 총 1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광주·전남 284명 등 5955명에 이른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썩썩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

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14명을 비롯한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 6년, 조씨 5년, 최씨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반면 존리 전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연휴뉴스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